

HEADLINE NEWS

교통지체를 줄이기 위해 방만한 도로점용 공사 관리 강화 (영국)

영국에서는 최근 방만하게 관리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각종 지하매설물 관련 회사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정부의 교통관리법안 수립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항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회사는 최고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도로점용 공사 허가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도로점용 공사에 대한 지자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주요 행사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된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ww.pm.gov.uk/output/page7049.asp)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순위 발표 (영국)
- ② “수도권 지역에 고밀도 고층 서민주택 건설시 높은 초과비용 발생” (런던)
- ③ 강력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전략 제안 (새크라멘토)

도시환경

- ④ 조명(Lighting) 관련법 강화 (텍사스주 플라워마운든시)
- 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영국)
- 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요금 부과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

- ⑦ 주거지역내 도로상의 차량과속을 억제하는 교통진정(traffic calming) 기법 적용 (테네시주: 내슈빌시)
- ⑧ 올랜도 대도시권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연결 계획 (올랜도)

사회복지문화

- ⑨ 패스트푸드점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 의무화 추진 (뉴저지주)
- ⑩ 노년층에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하기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애틀랜타)

행.재정

- ⑪ 인구감소로 인한 市의 재정위기 심화 (디트로이트)
- ⑫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장래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포럼 개최 (애틀랜타)
- ⑬ EU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식체제 평가 실시 (헬싱키)

①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순위 발표 (영국)

영국에서 2004년 11월 5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는 글래스고(Glasgow)와 헐(Hull)이다. 글래스고에 사는 남성의 60%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40%의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20% 이상이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해문제와 교통체증, 그리고 통근문제가 심각한 런던은 네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자살’과 ‘흡연’은 높은 스트레스 레벨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Planning, 2004. 11)

② “수도권 지역에 고밀도 고층 서민주택 건설시 높은 초과비용 발생” (런던)

영국 LHF(London Housing Federation)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고밀도 고층 서민주택 건설시 높은 초과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민주택을 수도권에 고밀도 고층으로 지을 경우 엘리베이터,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시설, 오픈스페이스와 창고 시설물 설치를 위해 약 14,000파운드의 비용이 가구당 초과 부담된다. LHF는, 도심에 고밀도 고층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초과비용은 간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초과비용이 서민주택 건설과 계획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Planning, 2005. 2. 11, “Higher Density Housing for Families”)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강력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전략 제안 (새크라멘토)

미국 캘리포니아州的 새크라멘토 지방정부연합(SACOG: Six-County Sacramento Area Council of Governments)은 2050년 새크라멘토지역 성장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성장추세 유지에서 도시성장한계선과 같은 강력한 성장관리 시나리오까지 6개의 대안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시된 성장관리전략들은 도시지역에서의 고밀도 혼합개발과 Infill 재개발, 상업지역이나 고용중심지의 주차공간 감축, 가솔린 세금인상 등 다양하다. 또한 새크라멘토 다운타운에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여 완전한 보행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강력한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채택될 경우, 보행교통량이 9.3%에서 13.2%로, 자전거이용률이 7.1%에서 9.7%로, 대중교통량이 4.8%에서 16.3%로 개선되고, 나홀로차량비율이 36.5%에서 24.4%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sacregionblueprint.org/sacregionblueprint)

④ 조명(Lighting) 관련법 강화 (텍사스州: 플라워마운드市)

미국 텍사스州 플라워마운드(Flower Mound)市는 6년 전에 제정한 조명(lightning) 관련 법규정을 최근 더욱 강화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개인 주거지의 실외활동을 위한 조명시설은 반드시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조명 빛이 주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명의 높이는 지상에서 30피트(9.2m)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조명시설의 위치는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는 필지선으로부터 40피트(12.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의 밝기는 법에서 규정한 빛의 밝기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과 가로등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야간에도 이용하는 스포츠 공공시설은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야간 조명이 공기, 소음, 냄새처럼 근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The Dallas Morning News, 2005. 1. 30)

5]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영국)

영국의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런던지역과 영국의 다른 대도시 지역의 구청들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침서를 통해 밝혔다. 즉, 각 구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지역의 위치’와 ‘개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영국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 한 지역 이상의 ‘AQMA(Air Quality Management Area)’를 지정한 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DEFRA에 보고해야만 한다. DEFRA의 지침서는 도시계획가에게 대기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Planning, 2005. 2. 11, “Development Control: Planning for Air Quality”)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요금 부과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미국에서 최초로 쇼핑시 비닐봉지를 요구하면 17센트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쇼핑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닐봉지에 도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도 유해한 독성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닐봉지의 유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썩는 바이오 비닐봉지(Bio-Plastic Bag)도 현재 개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비닐봉지 없는 도시’ 캠페인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썩는 바이오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비닐봉지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아일랜드와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 부담금을 높이고 있으며, 쇼핑시 비닐봉지 대신 쇼핑백을 가지고 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www.culturechange.org/e-letter-plastics.html)

7] 주거지역내 도로상의 차량과속을 억제하는 교통진정(traffic calming) 기법 적용 (테네시주: 내슈빌시)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시에서는 최근 한 주거지역내 도로에서 차량과속을 억제하는 교통진정(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여 시행중이다. 이 도로는 이 지역을 관통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첨두시에는 교통혼잡, 비첨두시에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당국은 주거지역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교통진정기법 중 해당 도로구간을 지그재그 형태로 바꾸고 노상주차를 엇갈려가면서 양방향에 모두 허용하는 'lane shifting with alternating parking' 기법을 선택하여 이 도로구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2년여에 걸친 다양한 대안 검토 및 실제 적용 등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최근의 시행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타 지역에도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진정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tennessean.com/local/archives/05/01/65060966.shtml?Element_ID=65060966)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8 올랜도 대도시권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연결 계획 (올랜도)

미국 플로리다州的 올랜도 대도시권 계획청(Metro Orlando)은 ‘자전거와 보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도시권내 단절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디자인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Metro Orlando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위한 자세한 안내지도를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안내지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로 겸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산책로 등에 대한 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결될 자전거도로 구간도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www.metroplanorlando.com/pdf/bikeped_best%20practices.pdf)

(www.metroplanorlando.com/bikeorlando)

9 패스트푸드점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 의무화 추진 (뉴저지주)

미국 뉴저지주 당국은 패스트푸드점의 메뉴판에 음식의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州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은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한해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시민들에게 건강을 고려하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음식점협회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저지주를 포함하여 6개 州가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abclocal.go.com/wabc/news/apress_021305_menuslabelingnj.html)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노년층에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하기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州的 애틀랜타市는 최근 노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하는 걷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0-Week Walking Program’ 이라고 불리는 이번 행사는 애틀랜타 대도시권 도시계획기구인 Atlanta Regional Commission이 추진하고 있으며, 애틀랜타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애틀랜타 대도시권 지역 내의 21개 노년층 관련 시설에서, 초청된 100여명의 시민과 시장이 함께 걷기 행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걷기 행사에서 市당국은 참가자에게 만보기와 티셔츠 등을 증정하였고, 걷기와 같은 운동의 정기적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45~64세의 미국인 중 40%가 주로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비율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때 60%로 증가하였다.

(www.atlantaregional.com/aging/aarpsteppers.html)

④ 인구감소로 인한 市의 재정위기 심화 (디트로이트)

미국 미시건州의 디트로이트(Detroit)市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市의 현재 인구는 911,000명으로 자동차 산업이 번성하던 1950년대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市는 현재 3억 8,900만 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wanme M Kilpatrick 시장은 재정적자로 인해 686명의 공무원 해고, 237개의 일자리 축소, 임금 10% 삭감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야버스 서비스와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들도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FA0815FC385F0C718CDDAB0894DD404482)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장래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포럼 개최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州的 애틀랜타市는 지역 내 고교생들이 지역계획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Model Atlanta Regional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이 포럼은 애틀랜타 대도시권 도시계획기구인 Atlanta Regional Commission과 조지아 YMCA의 주도로 199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계획 단계에 장래의 주인공이 될 지역 내 고교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이 포럼의 목적이 있다. 이 포럼의 참가대상은 학교 및 각종 단체의 신청자 중 선발된 50여명의 고교생이며, 이들에게 지역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이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실제 지역계획 수립절차를 통해 도출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포럼 참가자들이 제시했던 방안 중에서 대기오염 및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통학버스 활성화 대책과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실제 지역계획에 반영되기도 했다.

(www.atlantaregional.com/communitybuilding/marc.html)

EU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식체제 평가 실시 (헬싱키)

EU 회원국가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ESPON(The 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룩셈부르크에 소재)은 2003년 지식체제 평가에서 유럽의 도시들 중 핀란드의 헬싱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헬싱키(214점), 2위 오슬로(200점), 3위 스톡홀름(193점), 4위 뮌헨(177점), 5위 파리(170점)다. 이 지식체제 점수는 25세부터 59세까지 성인의 교육수준과 전체 노동인구 중 R&D 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값을 평균한 점수이다.

(www.hel.fi/english/current/HelsinkiNews04.pdf)